

“체력 키워 올해는 꼭 6강 오르겠다”



광주FC 2년차 김민혁

이적 후 36경기 3골 8도움

2년 연속 클래식 잔류 한 축

“지난해보다 더 많이 뛴 것”

광주 FC의 2017시즌 중심에 김민혁(24)이 있다.

김민혁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정조국과 함께 FC 서울에서 광주로 이적을 했다. 이적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정조국에 쏠려있었다. 시즌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민혁은 ‘유망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광주의 중원 사령관이 됐다.

서울에서 뛰던 2015년 6경기 출전에 그쳤던 김민혁은 2016년에는 36경기에 출전해 3골 8도움을 기록하며 중원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서울에서 함께 온 정조국과 만점 호흡을 과시하며 팬들을 환호케 한

▶광주 FC ‘중원의 사령관’ 김민혁이 지난 3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시작된 팀의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광주의 2년 연속 클래식 잔류를 이끈 한 축이었다.

있을 수 없는 한 해를 보냈던 김민혁은 “재미있게 보낸 한 해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냈다. 팀 성적도 좋았다”며 “경기를 뛰다 보니 경험과 자신감이 많이 올랐다. 선수로서 경기수가 많아졌다는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님께서 믿어주시기에 가능했다”며 잠재력을 보고 그를 영입하고 기회를 준 남기일 감독에 대한 고마움 마음도 표했다.

꿈같은 2016년을 보낸 그는 지난 2일 광양에 집을 풀고 팀의 1차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밝은 표정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혁에게 지난 휴식기는 몸과 마음을 키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어느 겨울보다 편안하게 한 해를 돌아본 그는 집 밥을 먹으면서 몸도 불렀다.

“감독님께서 휴식기 때 몸을 키우고 올라 하셨다. 어머니가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5kg 늘었다”며 웃은 김민혁은 “이제 게임에 뛴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 팀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던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에도 차근차근

원점에서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손발이 적적 마셨던 정조국과 이찬동이 각각 강원 FC와 제주 유나이티드로 떠나면서 새로운 진영이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민혁은 “두 사람하고 정말 호흡이 좋았다. 하지만 광주는 한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현재 있는 선수들도 능력이 좋기에 맞춰가면 좋은 팀이 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자신감에는 새 전력도 있다. 이번 겨울 프로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친구 이우혁, 멀티플레이어로 대학리그를 호령한 이한도, 제주 유나이티드 측면 날개인 정영종이 합류하면서 기대감이 높다.

1년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김민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주축 선수로 광주를 이끌며 6강 고지에 오르겠다는 것이 김민혁의 각오다.

김민혁은 “지난해 많이 뛰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특히 여름 넘어가기 쉽지 않았는데 경험이 있는 만큼 (올 시즌에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작년보다 더 많이 뛰고 밀고 나가야 할 것 같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스피릿A(6강)에도 반드시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머리 25연승...결승서 조코비치 만날까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 투어 엑슨 모바일오픈 넷째날 단식 1회전에서 영국의 앤디 머리가 제러미 샤프디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엑슨 모바일오픈 2회전 진출

앤디 머리아(1위·영국)가 거침없는 25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머리는 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엑슨 모바일오픈(총상금 123만7천190 달러)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제러미 샤프디(69위·프랑스)를 2-0(6-0 7-6(2))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머리는 이로써 공식 경기 25연승의 상승세를 지속했다.

머리는 지난해 9월 아르헨티나와 데이비스컵 경기 이후 공식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이벤트 대회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무바달라 챔피언

십에서 다비드 고핀(11위·벨기에)에게 0-2(6-4-7 4-6)로 졌지만 이 대회는 공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연승 기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머리는 2회전에서 제럴드 맥처(68위·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 대회에서 1, 2번 시드를 받은 머리와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결승까지 진출하면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라파엘 나달(9위·스페인)은 ATP 투어 브리츠번 인터내셔널(총상금 43만7천380 달러) 1회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나달은 1회전에서 알렉산드르 돌고포프(62위·우크라이나)를 2-0(6-3 6-3)으로 꺾었다.

나달의 다음 상대는 미샤 즈베레프(51위·독일)다. /연합뉴스

기다렸는데 이번 시즌...불발된 ‘쌍용 매치’

〈성용〉

〈청용〉

EPL 20R 스완지 vs C펠리스

기성용 선발...이청용 벤치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과 이청용(크리스탈 팰리스)의 잉글랜드 무대 맞대결은 이번 시즌 성사되지 않았다.

스완지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0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기성용은 이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상 복귀 후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이청용은 교체 명단에 포함됐으나,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3라운드에서는 둘다 결장한 바 있다. 기성용은 이날 전후반 90분간 활약하면서 팀의 4연패에 마침표를 찍는 원정승에 힘을 보탤었다.

풀 클레멘트 새 감독 부임 이후 가진 첫 경기에서 기성용은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배치됐다. 경기장도 훨씬 넓게 쓰며 볼을 배급했다.

전반 18분에는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얻은 코너킥을 날카로운 슈팅으로 연결했다. 선제골로 이어진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

기성용은 전반 42분 상대 진영 왼쪽 측면으로 공을 몰고 가다가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었다.

스완지시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길피 시구르드손이 골문으로 울린 프리킥을 알피 모슨이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크리스탈 팰리스의 반격에 밀렸다. 그러던 후반 38분 크리스탈 팰리스 윌프리드 자하의 논스톱 슈팅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5분 뒤 후반에서 로빙 패스를 받은 앙헬 라멜라이 결승골을 터뜨려 크리스탈 팰리스를 1-0으로 제압했다.

스완지는 전반 32분 상대 크리스티안 벤테케가 골키퍼에 걸려 넘어지고, 후반 33분에는 페넬타박스 안에서 수비수 팔에 공이 맞았으나 다행히도 페널티킥을 허용하지 않았다.

감독을 교체하자마자 승리를 거둔 스완지시티는 4승 3무 13패(승점 15)로 힐시티(승점 13)를 끌어내리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샘 앨러다이스 감독 선임 이후 치른 첫 홈 경기에서 패하면서 최근 6경기 2무 4패에 그쳤다. 4승 4무 12패(승점 16)로 강등권(18위)에 승점 1이 앞선 1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6-2017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스완지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기성용(왼쪽)과 상대 선수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우, 독일·네덜란드 임대 가능성”

스페인 ‘명가’ FC바셀로나 후베날A의 이승우(19)가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리리그로 임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페인 매체 ‘스포츠’는 4일(한국시간) “이승우가 조만간 바르셀로나를 떠날 수도 있다”며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 B팀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단은 기량 발전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임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오는 6월 만 19세가 되는 이승우의 성장세가 구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쏠아지는 큰 관심도 이승우에게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런 관심 때문에 이승우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우가 경쟁자들과 비교할 때 체력에 약점을 보여 바르셀로나 B팀

에 올라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며 “바르셀로나 B팀에 가도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이승우의 측근들도 임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중위권 팀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는 다만 “이승우의 꿈은 바르셀로나에서 상공하는 것”이라며 “임대된 뒤 팀에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팀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한다. 이번 시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은 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B팀으로 승격하면 바이아웃 금액이 300만 유로에서 1천200만 유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승우의 성장과 경제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임대가 최고의 옵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이용대 인도에 뒀다

프리미어 리그서 새 출발...팬들 기대 한몸에

“세계적인 배드민턴 전설이 왔다” 인도의 배드민턴 리그인 프리미어 배드민턴 리그(PBL)가 이용대(29)를 크게 반기고 있다.

이용대는 10년 이상 짙어졌던 국가대표 부담감을 털고 새로운 방식으로 배드민턴 팬과 만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용대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과 코리야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에 국가대표로 복귀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일단은 그동안 압박감과 훈련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일상을 누릴 생각이다.

이용대는 올해 처음으로 PBL에 진출했다. ‘뭄바이 로케츠’(Mumbai Rockets)라는 팀에 오자마자 주장을 맡았다. 한국 여자단식의 간판 성지현(27)도 이 팀의 일원이다. PBL에는 이용대와 성지현뿐 아니라 세계 최정상급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모여 있다. 뭄바이 로케츠는 인도와 한국, 태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

적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그중에서도 이용대를 향한 기대가 크다.

이용대는 “이 리그에 와서 기쁘다. 경기장 시설은 한국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배드민턴 열기는 굉장하다”며 새로운 무대에서 뛰는 설렘을 전했다.

인도의 ‘스포츠스타리아브’는 한국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 3번 출전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고, 오랜 시간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던 이용대의 ‘풍부한 경험’에 뭄바이 로케츠가 의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대는 이 팀에서 태국의 쉐파워팻 니팍폰과 남자복식을, 폴란드의 나디에즈다 지예바와 혼합복식을 이뤄 출전한다.

이용대는 3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PBL 홈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펠리 에이서스를 상대로 혼합복식과 남자복식에서 모두 팀에 승리를 안겼다. 성지현도 여자단식에서 승리했다. /연합뉴스